



도서관 운영안내 - 이용시간: 평일 08:45-16:45, 대출권수: 2권, 대출기간: 1주

청구기호에 대해 알아보아요~

모든 도서관에 있는 도서의 책등에는 이런 청구기호가 있어요.

청구기호는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 813.6 ⇒ 분류번호 ⇒ **한국십진분류법**에 의한 분류
- 박657 ⇒ 저자기호 ⇒ 저자의 성과 이름에 대한 번호
7은 서명의 첫 자음
- v.1 ⇒ 권차기호 ⇒ 시리즈물인 경우
- c.2 ⇒ 복본기호 ⇒ 동일도서인 경우

☆ 검색한 청구기호를 보고 서가에서 찾아 열람 또는 대출하시면 됩니다.

☆ <정왕중학교 자료검색>



도서관 이용 통계 [2022.3.2.~7.15.]

1학기 다대출학생	1학기 다대출학급
1위: 문*진 (2-1)	
2위: 문*현 (3-8)	1위: 2-4 (206권)
3위: 강*욱 (3-7)	2위: 1-2 (188권)
4위: 서*건 (2-4)	3위: 1-7 (167권)
5위: 문*현 (1-2)	



책마루도서관 인기 도서



Book

Writer

- 1위: 죽이고 싶은 아이 이꽃님
- 2위: 체리새우: 비밀글입니다 황영미
- 3위: 아몬드 손원평
- 4위: 라면은 멋있다 공선옥
- 5위: 불편한 편의점 김호연

📖 고전 읽기



조지 오웰 <동물농장> -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그러나 어떤 동물은 더 평등하다."

러시아 혁명과 스탈린의 독재 등 공산주의의 악영향을 비판하기 위해 쓴 이 책을 그저 지나간 이야기로 생각 해선 안 된다. 권력자들이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남용하지 않는지 늘 감시해야 한다. 우리는 절대 무관심해서는 안 된다.

- 조*혁(2-7)

✍️ 책 속 밑줄 긋기

"사람은 서로 만나고 힘을 보태고, 그리고 강해진다. 그러한 세상살이 속에 사람은 결코 외톨이도 고독한 존재도 아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된다. 그리고 인생이 갑자기 아름다워진다."

- 위기철<아홉살 인생>/ 박*진(1-7)

"어떤 상처는 깊어서 극복할 수 없기도 해. 그럴 땐 같이 살아가야만 하지. 난 상처를 지우려고 애쓰는 대신 상처는 거기에 둔 채, 좋은 것들로 시선을 돌리기로 했어. 그런 것들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거든."

- 김지숙<소녀A, 중도 하차합니다>/ 심*진(2-1)

"때로는 뒤에 남긴 삶의 자취가 앞에 놓인 길보다 더 중요한 법이라는 거다."

- 바바라 오코너<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이*윤(2-6)

나만의 독서기록장



자신(세상)과 연결 짓기

백은유<유원>

#관계



화재에서 자신을 구하고 죽은 언니와 떨어지는 자신을 받다가 장애를 얻은 아저씨에게 느끼는 반감과 증오, 그리고 미안함과 죄책감 속에 갈등하며 성장하는 유원의 이야기. 우리는 한 사람에게 전혀 다른 두 가지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좋지만 싫고, 사랑하지만 증오하고, 고맙지만 두려운. - 최*현(1-7)

김애란<칼자국>



"어머니의 칼끝에는 평생 누군가를 거둬 먹인 사람의 무심함이 서려있다. 어머니는 내게 우는 여자도, 화장하는 여자도, 순종하는 여자도 아닌 칼을 쥔 여자였다." 주인공과 마찬가지로 나의 몸과 마음에 어머니의 손길이 있음을 깨달았다. - 이*서(1-4)

손원평<아몬드>



"갑자기 뺨이 뜨겁다. 엄마가 뭔가를 닦아준다. 눈물이다. 어느새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고 있다. 그런데 또 웃는다. 엄마도 마찬가지다." 곤이를 만나고 윤재의 내면에 변화가 생겼다는 게 마음이 몽클해지면서 두 소년의 이야기가 잊히지 않는다. - 김*정(2-1)

최은영<밝은 밤>



할머니의 추억 속 새비 아저씨는 하루하루 먹고살기 힘든 현실에 부딪혀 일본으로 가서 일을 한다. 한번 가면 못 만날 수 있는 이별이 전제된 결정은 항상 안타깝다. 그런데 새비 아저씨가 간 곳에 원자폭탄이 투하되고 가족들은 받아들일 수 없는 가슴아픈 현실을 맞이한다. 삶의 터전과 목숨을 빼앗는 끔찍한 사건의 계획도 실행도 모두 사람에 의해 행해진 것이다. - 한*윤(3-8)

김선희<1의 들러리>

#학교



"어차피 잘 될 놈은 정해져 있어. 나머지는 들러리일 뿐"이라는 구절이 인상깊었다. '어차피'로 그냥 상황을 정리하는 것 같았다. 나도 H고 학생들처럼 사회의 불합리를 지적하고 잘못을 바로잡는 용기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다. - 전*훈(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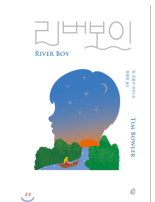
최은영<1분>

#죽음



아... 삼풍백화점 사건. 건물이 무너졌다. 진짜 폭삭 주저앉았다. 올해는 세월호 8주년이다.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이고 돈이 중요하다지만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미래의 아이들이 이런 사건을 겪지 않도록 제대로 된 어른이 돼야겠다. - 김*희(2-4)

팀 보올러<리버보이>



자신의 생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걸 자신은 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을 위해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면 갑자기 남겨진 사람은? "모든 게 변했구나, 제스, 모든 게 변했다. 예전과 같은 건 아무것도 없어. 영원한 건 아무것도 없는 거야. 저항해봐야 소용없단다. 우리 그걸 받아들이어야 해." - 최*아(3-2)

이꽃님<죽이고 싶은 아이>

#언론/미디어



어쩌면 지금까지 내가 알고 있는 진실은 내가 믿고 싶은, 사람들이 만들어낸 진실이 아닐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앞으로는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친 시선이 아닌, 균형을 잃지 않는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싶다. - 방*연(1-7)

플로리안 부센도르프 <핸드폰 없는 2주일>



슈미트 선생님은 "누구도 기계에 의존한 채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다. 평소에 나는 핸드폰에 많이 의존하며 산 거 같은데 이제 조금씩, 꾸준히 핸드폰 사용시간을 줄이고 바깥 활동을 많이 하도록 노력해야겠다. - 방*린(1-2)

김지숙<소녀A, 중도 하차합니다>



사람들은 그 글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확실하지도 않은데 비난부터 한다. 그리고 아이들에게 가혹하다. 아이들은 왜 꼭 이쁘고 말아야할까. 아이들을 보면 "아악, 더 먹으라고!!"라는 생각이 든다. - 심*진(2-1)

이현<그 여름의 서울>

#역사



6.25전쟁을 배경으로 각기 다른 사상을 가진 친구들의 가슴 아픈 결말. 모두가 죽을 때도 친일파는 끝까지 살아남는 것이 씁쓸했고, 굶지 않게 해준다는 말에 살고 싶어서 공산주의를 선택한 것인데 빨갱이로 몰려 죽임을 당하는 것이 너무 슬펐다. -오*림(3-6)

추정경 <내 이름은 망고>

#노동



수아가 아빠 있는 한국에 가기 위해 엄마 대신 캄보디아 가이드일을 하며 열심히 돈을 모으는 게 신기하고 슬펐다. 수아처럼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노력해서 해내야겠다는 생각도 들었다. - 박*(1-1)

이경화<저스트 어 모멘트>



직장을 다니거나 아르바이트를 할 때 불평등한 일을 당해도 뭐라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나는 예전에 불평등한 일을 겪었음에도 아무말 못하고 후회한 적이 있었는데 다음에는 정운이처럼 당당하게 내 권리를 말하고 싶다. - 백*림(1-6)

이수연<이PD의 방송국 탐구생활>

#진로



내가 만약 방송국에서 일하게 된다면? 방송이라는 카테고리의 직업 중 출연자가 되고 싶기도 하고, 드라마 PD도 되고 싶고 영상제작도 재밌을 것 같다. 방송에 관심이 있는 나에게 각각의 장단점을 알려준 유익한 책이었다. - 염*울(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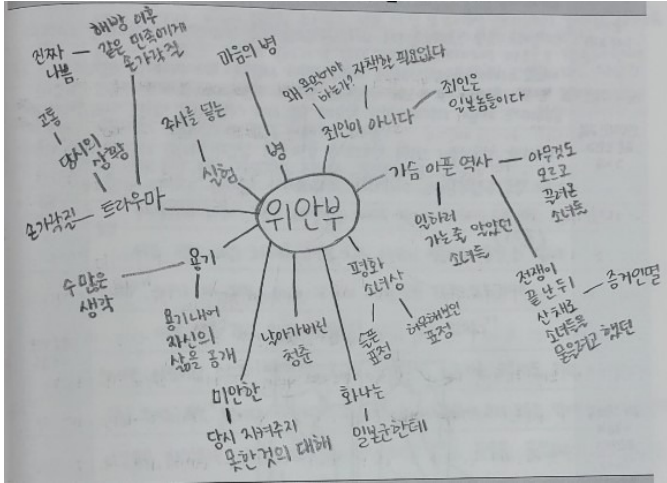
앤디림,윤규훈<10대를 위한 완벽한 진로 공부법>



"이제 우리는 생각과 진로의 방향을 언택트, 즉 비대면 산업 쪽으로 향해야 한다"라는 문장을 읽고 꿈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았다. 코로나19로 바뀐 세상에서 유용할 것 같은 네이버나 카카오톡 같은 회사가 나의 직업 1순위가 되었다. - 전*현(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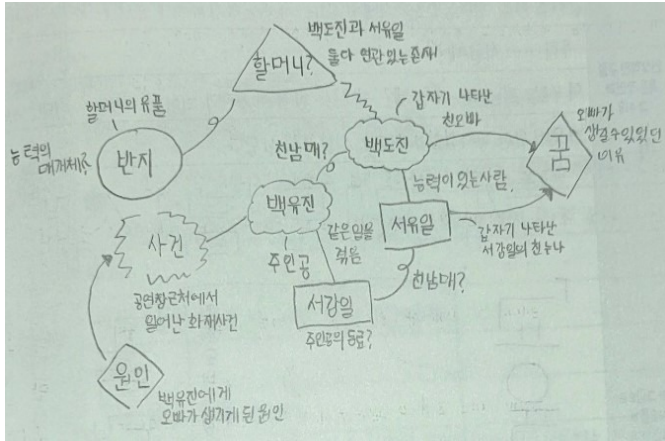
마인드맵으로 나타내기

민경혜<꽃과 나비>



- 심*나(3-5)

안세화<남매의 탄생>



- 김*희(2-4)



책 속 주인공에게 편지 쓰기



이희영 <나나>

한수리에게
안녕, 다시 몸으로 돌아간 걸 축하해. 버스사고를 당하고 육체에서 빠져나와 영혼이 되었을 때 나 였다면 굉장히 무서웠을거야. 육체가 영혼을 거부한 거라니, 내가 나를 거부한다니 어이가 없어. 그리고 문득, 나도 SNS에 게시물을 올리곤 하는데 이게 진짜 내 모습일까하는 생각이 들더라. 어쩌면 너처럼 남의 눈을 의식해 완벽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곤 있지 않았을까? 누구보다 열심히 살고 남의 부러움도 받아봤지만 가끔씩은 낭떠러지에 선 기분이 들기도 했거든. 그러다 네 말이 생각났어. "가끔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고, 틀려도 잘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주기" 이 말에 용기를 얻었어. 고마워!

- 이*연(3-5)



질문 만들기

조구만 스튜디오<우리는 조구만 존재야>



Q. 공룡이 마음이 복잡하면 하는 일은?
A. 집안일을 한다. 마음이 복잡하면 집도 마음만 큼이나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마음을 정리하긴 힘드니 공룡은 자신이 할 수 있는 걸 한다.
- 박*현(2-3)

루리<긴긴밤>



Q. 만약에 내가 동물인데 인간이 우리를 공격하고 죽이려 한다면?
A. 내가 죽든 말든 가족을 구하려 진짜 온 힘을 다해 뛰고 막고 공격해서 가족을 지키려 최선을 다 할 것 같다. 못 믿을 인간이 너무 많다.
- 김*은(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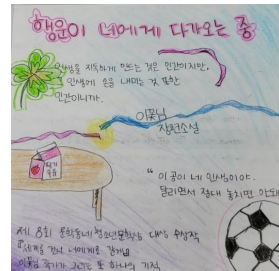
유윤한<궁금했어, 뇌과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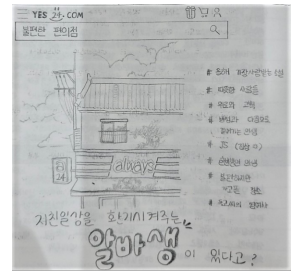
Q. 청소년기에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 행동을 하기 쉬운 까닭은?
A. 공포심이나 분노를 느끼게 하는 편도체를 억제하고 이성적 판단을 하게 하는 전두엽이 아직 전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 김*안(3-6)



글과 그림으로 자유롭게 표현하기



이*린(1-1)



한*윤(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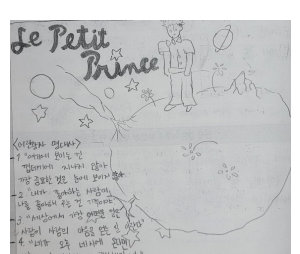
손*은(2-5)



반*연(2-3)



반*연(3-1)



최*진(1-3)

1학기 도서관 행사

4월 책다짐 꽃나무&너의 이름은?



5월 책이랑 지구촌 여행



6월 평화 서가&북 퀴즈 온더 블럭



7월 김호연 작가와의 만남&도서관 추리 게임



책무지개 읽고 퍼즐 풀고

다음 퍼즐을 푼 다음, 도서관에 있는 활동지에 적어 8월 26일(금)까지 제출해 주세요. 추첨을 통해 당첨된 학생에게는 소정의 선물을 드립니다.

							1
2/3							
						4	
			5				
				6			
7/8							
					9		
						10	

<가로열쇠>

2.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안이 될 때 인생이 아름다워진다고 말하는 책의 제목은 000 00이다.
5. 우리학교 도서관 최고 인기도서 제목은 000 00 00이다.
7. 도서의 책등에 붙어있으며 책의 위치를 서가에서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기호를 0000라고 부른다.
9. 코로나19로 바뀐 세상에서 우리의 생각과 진로의 방향은 000, 즉 비대면 산업 쪽으로 향해야 한다. - 앤디럼,윤규훈
10. 00 00은 위안부 할머니들의 꽃 피우지 못했던 삶의 이야기를 담고 있다.

<세로열쇠>

1. 영원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한다고 말하는 팀 보울러의 책제목은 0000다.
3. 곤이와 윤재의 만남과 그들 내면의 감정 변화가 몽클한 소설의 제목은 000이다.
4. '밝은 밤'과 '1분'을 쓴 작가의 이름은 000이다.
6. 우리학교 7월 작가와의 만남의 주인공이자 '불편한 편의점'을 쓴 작가는 000이다.
8. 0000에는 전두엽이 전부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감정을 잘 조절하지 못하고 충동적 행동을 하기 쉽다. - <궁금했어, 뇌과학>